

[week6] DDPM



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참고할만한 기술블로그를 찾고 해당 블로그의 내용을 정리 하듯이 필사하며 공부하였습니다.

참고한 블로그는 맨 아래에 reference로 달아두었습니다.

Abstract

- 본 논문에서는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를 이용한 고품질 이미지 생성 결과를 제시한다.
- 이는 비평형 열역학(nonequilibrium thermodynamics)의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latent variable models의 일종이다.
- denoising score matching과 Langevin dynamics 사이의 새로운 연결 고리를 기반으로 설계된 weighted variational bound를 통해 모델을 학습하며, 이로부터 최고의 성능을 얻었다.
- 또한, 제안된 모델은 progressive lossy decompression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성 구조를 가지며, 이는 autoregressive decoding의 일반화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.

Introduction

- DDPM은 주어진 이미지에 time에 따른 상수의 파라미터를 갖는 작은 가우시안 노이즈를 time에 대해 더해나가는데, image가 destroy하게 되면 결국 noise의 형태로 남을 것이다. (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.)
- 이런 상황에서 normal distribution에 대한 noise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
⇒ 주어진 Noise를 통해서 완전히 이미지 복구 = image generation 성공!
- 논문에서는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의 과정을 보여줌
- diffusion model은 유한한 시간 뒤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variational inference를 통해 훈련된 Markov chain을 parameterized한 형태

Backgrou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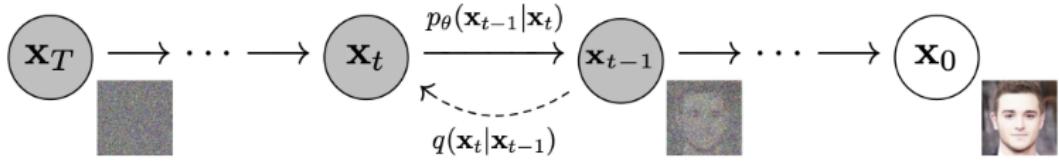


Figure 2: The directed graphical model considered in this work.

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 2020

- Forward Diffusion Process (q), Reverse Diffusion Process (p)
- 둘의 resolution은 서로 같음
- Objective Function (L)
 - : 주어진 noise에 대해 어떻게 noise를 점진적으로 걷어낼 것이냐의 문제
 - : x_t 가 들어왔을 때 x_{t-1} 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, 우리는 x_0 또한 예측할 수 있다.
- 생성된 이미지의 log likelihood를 최대화 = negative log likelihood로 최소화

Loss Function

$$\mathbb{E}[-\log p_\theta(\mathbf{x}_0)] \leq \mathbb{E}_q \left[-\log \frac{p_\theta(\mathbf{x}_{0:T})}{q(\mathbf{x}_{1:T}|\mathbf{x}_0)} \right] = \mathbb{E}_q \left[-\log p(\mathbf{x}_T) - \sum_{t \geq 1} \log \frac{p_\theta(\mathbf{x}_{t-1}|\mathbf{x}_t)}{q(\mathbf{x}_t|\mathbf{x}_{t-1})} \right] =: L$$

Diffusion Model의 Loss Function

$$\mathbb{E}_q \left[\underbrace{D_{\text{KL}}(q(\mathbf{x}_T|\mathbf{x}_0) \| p(\mathbf{x}_T))}_{L_T} + \sum_{t > 1} \underbrace{D_{\text{KL}}(q(\mathbf{x}_{t-1}|\mathbf{x}_t, \mathbf{x}_0) \| p_\theta(\mathbf{x}_{t-1}|\mathbf{x}_t))}_{L_{t-1}} \underbrace{- \log p_\theta(\mathbf{x}_0|\mathbf{x}_1)}_{L_0} \right]$$

Diffusion Model의 최종적인 Loss Function

Diffusion models and denoising autoencoders

Objective Function (L)

$$\mathbb{E}_q \left[\underbrace{D_{\text{KL}}(q(\mathbf{x}_T | \mathbf{x}_0) \| p(\mathbf{x}_T))}_{L_T} + \sum_{t>1} \underbrace{D_{\text{KL}}(q(\mathbf{x}_{t-1} | \mathbf{x}_t, \mathbf{x}_0) \| p_\theta(\mathbf{x}_{t-1} | \mathbf{x}_t))}_{L_{t-1}} \underbrace{- \log p_\theta(\mathbf{x}_0 | \mathbf{x}_1)}_{L_0} \right]$$

Diffusion Model의 최종적인 Loss Function

- 여기서 가장 중요한 term은 L_{t-1} 이다. 우리는 x_0 부터 시작하여 conditional하게 식을 전개하다보면, tractable한 forward process posterior $q(x_{t-1} | x_t, x_0)$ 의 정규분포를 알 수 있는데, 이를 바탕으로 KL divergence를 계산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$p_\theta(x_{t-1} | x_t)$ 를 학습시킬 수 있다.

1. Forward Diffusion Process (LT)

- 논문에서는 forward process variances인 β 를 learnable한 파라미터로 두는게 아니라 상수로서 Fix하기 때문에 L_T 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.
- 이 loss term은 항상 0에 가까운 상수이며, 학습과정에서 무시된다.

2. Reverse Diffusion Process (L1:T-1)

-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$q(x_{t-1} | x_t, x_0)$ 의 분포를 알아내고, 두 번째로 $p_\theta(x_{t-1} | x_t)$ 를 알아내기 위해 Σ_θ 와 μ_θ 를 알아내야 한다.

1. $q(x_{t-1} | x_t, x_0)$

$$q(x_{t-1} | x_t, x_0) = N(x_{t-1}; \tilde{\mu}(x_t, x_0), \tilde{\beta}_t I)$$

$$\text{where, } \tilde{\mu}_t(x_t, x_0) := \frac{\sqrt{\bar{\alpha}_{t-1}} \beta_t}{1 - \bar{\alpha}_t} x_0 + \frac{\sqrt{\alpha_t} (1 - \bar{\alpha}_{t-1})}{1 - \bar{\alpha}_t} x_t, \quad \tilde{\beta}_t := \frac{(1 - \bar{\alpha}_{t-1})}{1 - \bar{\alpha}_t} \beta_t$$

2. $p_\theta(x_{t-1} | x_t)$

$$p_\theta(x_{t-1} | x_t) = \mathcal{N}(x_{t-1}; \mu_\theta(x_t, t), \Sigma_\theta(x_t, t))$$

3. $\Sigma_\theta(x_t, t)$: 학습이 필요없는 term

$$\Sigma_\theta(x_t, t) = \sigma_t^2 I$$

4. $\mu_\theta(x_t, t)$

$$\mu_\theta(\mathbf{x}_t, t) = \tilde{\mu}_t \left(\mathbf{x}_t, \frac{1}{\sqrt{\bar{\alpha}_t}} (\mathbf{x}_t - \sqrt{1 - \bar{\alpha}_t} \epsilon_\theta(\mathbf{x}_t)) \right) = \frac{1}{\sqrt{\bar{\alpha}_t}} \left(\mathbf{x}_t - \frac{\beta_t}{\sqrt{1 - \bar{\alpha}_t}} \epsilon_\theta(\mathbf{x}_t, t) \right) \quad (11)$$

$$\mathbb{E}_{\mathbf{x}_0, \epsilon} \left[\frac{\beta_t^2}{2\sigma_t^2 \alpha_t (1 - \bar{\alpha}_t)} \|\epsilon - \epsilon_\theta(\sqrt{\bar{\alpha}_t} \mathbf{x}_0 + \sqrt{1 - \bar{\alpha}_t} \epsilon, t)\|^2 \right] \quad (12)$$

5. Sampling

- 위 과정을 통해서 μ_θ 를 얻어내면, 이를 활용해서 우리는 $p_\theta(x_{t-1} | x_t)$ 로부터 x_{t-1} 을 샘플링할 수 있다.

Algorithm 2 Sampling

```

1:  $\mathbf{x}_T \sim \mathcal{N}(\mathbf{0}, \mathbf{I})$ 
2: for  $t = T, \dots, 1$  do
3:    $\mathbf{z} \sim \mathcal{N}(\mathbf{0}, \mathbf{I})$  if  $t > 1$ , else  $\mathbf{z} = \mathbf{0}$ 
4:    $\mathbf{x}_{t-1} = \frac{1}{\sqrt{\bar{\alpha}_t}} \left( \mathbf{x}_t - \frac{1 - \alpha_t}{\sqrt{1 - \bar{\alpha}_t}} \epsilon_\theta(\mathbf{x}_t, t) \right) + \sigma_t \mathbf{z}$ 
5: end for
6: return  $\mathbf{x}_0$ 

```

샘플링 알고리즘

6. Lt-1

- 위의 재료들을 잘 조합하여 D_{KL} 을 계산하면 L_{t-1} 을 얻어낼 수 있다.

$$\mathbf{x}_t(\mathbf{x}_0, \epsilon) = \sqrt{\bar{\alpha}_t} \mathbf{x}_0 + \sqrt{1 - \bar{\alpha}_t} \epsilon \text{ for } \epsilon \sim \mathcal{N}(\mathbf{0}, \mathbf{I})$$

$$L_{t-1} = \mathbb{E}_q \left[\frac{1}{2\sigma_t^2} \|\tilde{\mu}_t(\mathbf{x}_t, \mathbf{x}_0) - \mu_\theta(\mathbf{x}_t, t)\|^2 \right] + C \quad (8)$$

$$L_{t-1} - C = \mathbb{E}_{\mathbf{x}_0, \epsilon} \left[\frac{1}{2\sigma_t^2} \left\| \tilde{\mu}_t \left(\mathbf{x}_t(\mathbf{x}_0, \epsilon), \frac{1}{\sqrt{\bar{\alpha}_t}} (\mathbf{x}_t(\mathbf{x}_0, \epsilon) - \sqrt{1 - \bar{\alpha}_t} \epsilon) \right) - \mu_\theta(\mathbf{x}_t(\mathbf{x}_0, \epsilon), t) \right\|^2 \right] \quad (9)$$

$$= \mathbb{E}_{\mathbf{x}_0, \epsilon} \left[\frac{1}{2\sigma_t^2} \left\| \frac{1}{\sqrt{\bar{\alpha}_t}} \left(\mathbf{x}_t(\mathbf{x}_0, \epsilon) - \frac{\beta_t}{\sqrt{1 - \bar{\alpha}_t}} \epsilon \right) - \mu_\theta(\mathbf{x}_t(\mathbf{x}_0, \epsilon), t) \right\|^2 \right] \quad (10)$$

7. Lsimple(θ)

- loss function을 epsilon에 대한 식의 형태로 다시 한 번 표현할 수 있다.
(= simplified objective function)
- 이러한 loss function을 통해 training을 하면 학습이 좀 더 잘 된다.

- 큰 t에 대해서도 network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.

$$L_{t-1} = \mathbb{E}_q \left[\frac{1}{2\sigma_t^2} \|\tilde{\mu}_t(\mathbf{x}_t, \mathbf{x}_0) - \mu_\theta(\mathbf{x}_t, t)\|^2 \right] + C \quad (8)$$

$$L_{\text{simple}}(\theta) := \mathbb{E}_{t, \mathbf{x}_0, \epsilon} \left[\|\epsilon - \epsilon_\theta(\sqrt{\bar{\alpha}_t} \mathbf{x}_0 + \sqrt{1 - \bar{\alpha}_t} \epsilon, t)\|^2 \right] \quad (14)$$

8. Training (DDPM의 training 과정 요약)

Algorithm 1 Training

```

1: repeat
2:    $\mathbf{x}_0 \sim q(\mathbf{x}_0)$ 
3:    $t \sim \text{Uniform}(\{1, \dots, T\})$ 
4:    $\epsilon \sim \mathcal{N}(\mathbf{0}, \mathbf{I})$ 
5:   Take gradient descent step on
        $\nabla_\theta \|\epsilon - \epsilon_\theta(\sqrt{\bar{\alpha}_t} \mathbf{x}_0 + \sqrt{1 - \bar{\alpha}_t} \epsilon, t)\|^2$ 
6: until converged

```

학습 알고리즘

Experiments

- DDPM image generation score

Table 1: CIFAR10 results. NLL measured in bits/dim.

Model	IS	FID	NLL Test (Train)
Conditional			
EBM [11]	8.30	37.9	
JEM [17]	8.76	38.4	
BigGAN [3]	9.22	14.73	
StyleGAN2 + ADA (v1) [29]	10.06	2.67	
Unconditional			
Diffusion (original) [53]			≤ 5.40
Gated PixelCNN [59]	4.60	65.93	3.03 (2.90)
Sparse Transformer [7]			2.80
PixelIQN [43]	5.29	49.46	
EBM [11]	6.78	38.2	
NCSNv2 [56]			31.75
NCSN [55]	8.87 ± 0.12	25.32	
SNGAN [39]	8.22 ± 0.05	21.7	
SNGAN-DDLS [4]	9.09 ± 0.10	15.42	
StyleGAN2 + ADA (v1) [29]	9.74 ± 0.05	3.26	
Ours (L , fixed isotropic Σ)	7.67 ± 0.13	13.51	≤ 3.70 (3.69)
Ours (L_{simple})	9.46 ± 0.11	3.17	≤ 3.75 (3.72)



Figure 3: LSUN Church samples. FID=7.89



Figure 4: LSUN Bedroom samples. FID=4.90

References

- <https://jang-inspiration.com/ddpm-2>

$$\mathbb{E}_q \left[\underbrace{D_{\text{KL}}(q(\mathbf{x}_T | \mathbf{x}_0) \| p(\mathbf{x}_T))}_{L_T} + \sum_{t>1} \underbrace{D_{\text{KL}}(q(\mathbf{x}_{t-1} | \mathbf{x}_t, \mathbf{x}_0) \| p_\theta(\mathbf{x}_{t-1} | \mathbf{x}_t))}_{L_{t-1}} \underbrace{- \log p_\theta(\mathbf{x}_0 | \mathbf{x}_1)}_{L_0} \right]$$

Diffusion Model의 최종적인 Loss Function